제3회 춘계 유방검진학회를 맞이하며

오 기 근

대한유방검진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

최근 한국인 여성암의 발생율은 급격히 증가 일로에 있어서 1990.7.1 - 6.30에는 전체암의 6위, 여성암의 3위였고, 2000.1 - 12에는 전체암의 5위, 여성암의 2위, 2001.1 - 12에는 전체암의 5위,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한 후 계속 2002.1 - 12 전체암의 5위, 여성암의 1위(16.8%,7,369건)를 유지하고 유방암의 발생 숫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발병율은 증가하였으나 서구유럽에 비하여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발병율은 아직 낮다. 그러나 큰 문제는 한국여성에서는 유방암의 호발 연령이 낮다는 것이다

즉, 2003년 12월에 발행한 2002.1 - 2002.12까지의 보건복지부 통계상 환자연령 40 - 49세(39.9%:2,859)가 가장 높은 호발 연령이고, 50 - 59세(23.6%:1,735건), 30 - 39세(18.3%:1,345건)등의 순으로 발생하며 60세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것은 미국 암학회의, 유방암은 60세 이후가 되면 점차 증가하고, 70 - 79세 사이가 최고 발생연령이라는 보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한국인 여성의 유방암의 스크리닝 검사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유방암의 발생연령이 너무 낮고 유방암병기 2기 이상인 때에 수술치료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더구나 젊은 여성 유방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유방암의 예후가 더 나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유방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질적인 삶의 황폐로 인하여, 본인뿐 아니라 가정적인 불안정을 유발, 정신적인 사회혼란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염려는 나 개인만의 기우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유방암의 원인들은 무엇이며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유방암의 원인들을 밝힐 수 있다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고 암에 대한 과감한 정복을 위한 적극적인 도전장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조기유방암을 발견한다는 것은 여성의 생명을 연장시킬수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보존술식 유방절제술로 부분만 절제 가능 하고, 유방성형수술로 여성미의 상징을 잃지 않고 삶의 질과 의욕을 높힐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유방에 증상이 있을 때에야 관심을 보였으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야 수동적으로 대증적 치료를 받고, 생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유방암 발생에 대하여 예방 혹은 정복한다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대처하며, 설사 유방암을 발견하더라도 치료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굳은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성들은 무증상이라도 정규적인 자가진단, 전문의사에 의한 촉진검사, 그리고 검진유방촬영검사를 받음으로써, 정상이라면 자신있는 일년을 살 수 있고, 비촉지 조기유방암을 발견 한다면 과감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여 유방암으로부터 거의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진을 위한 방사선 유방촬영술은 다수의 무증상인 사람들을 위하여 시행하는 일괄적인 검사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예후가 좋은 조기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책임있고 자격있는 유방전문방사선과 의사들의 오진없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의사들이 오진하지 않도록 물리학자들에 의한 유방촬영장비의 엄격한 화질관리가 잘 되어야 하며, 자격요건과 유방촬영의 경험이 많은 촬영기술을 가진 방사선사들이 완벽한 임무가 필수적이다. 화질관리가 잘된 유방촬영술로 짧은 시간내에 잘 촬영된 필름상에서는 많은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있으나 무증상여성에게 과다한 방사선이 피폭되지 않도록 완벽한 정도관리 체계를 이루어야한다. 한편 흔하지 않은 부위의 유방에 발생한 유방암이거나, 치밀유방의 젊은 여성, 임신과 수유중의 여성에서 미세유방암을 유방촬영술로 검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금기 조항임으로 유방초음파촬영술을 이용한 검진방법이 추천되고 있다. 유방초음파 검사는 유방에 방사선 조사의 위험이 없고 각 조직마다 초음파의 통과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 여성의 치밀유방내에 숨은 유방암의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으나, 유방초음파기기의 엄격한 정도관리와 유방스캐닝검사에 경험이 풍부한 자격의사의 판단이 불가능하면 조기유방암을 놓치기 쉬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나아가서는 예방의학 전문가들에 의한 한국인 유방암의 특징적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대한유방검진학회에서는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 25%에서 유방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곧 저소득층 50%까지 확대하여 유방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향후에는 곧 전국민 해당 연령여성에게도 혜택이 이루어지기 바란다.